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 CATI

---

제97차 CATI조사

# 여론조사꽃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CATI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CATI27.440.224.28.2

####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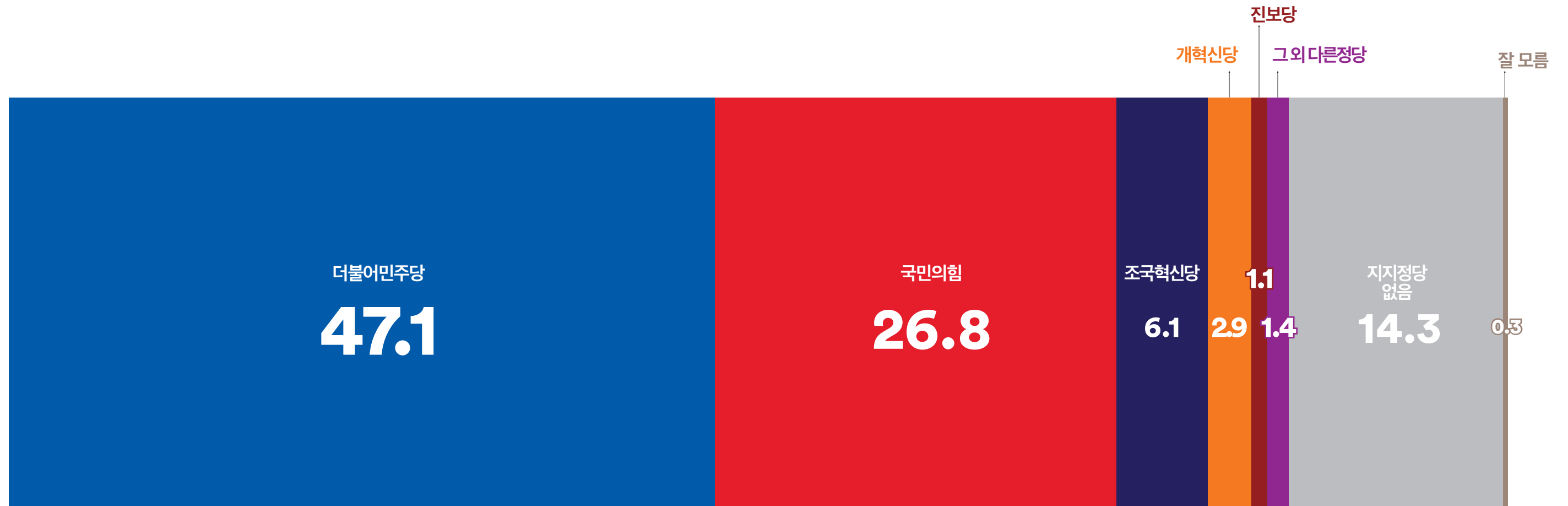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비율	성별	<div><div></div><div>49.0%남성</div><div>51.0%여성</div></div>	지역 <div><div></div><div>18.4%32.0%10.8%9.7%10.0%14.9%4.1%</div></div>
표본크기	1,015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15	100.0	1015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97	49.0	503	49.6	1.01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8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8)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18	51.0	512	50.4	0.98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1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8	15.6	158	15.6	1.00		
응답률	14.0% [총 통화시도 7,223명]			30대	152	15.0	153	15.1	1.00		
조사기간	2025년 1월 3일 ~ 1월 4일(2일간)			40대	177	17.4	178	17.5	1.00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04	20.1	198	19.5	0.97		
				60대	175	17.2	178	17.5	1.01		
				70세 이상	149	14.7	150	14.8	1.00		
			지역	서울	187	18.4	190	18.7	1.01		
				인천·경기	325	32.0	327	32.2	1.00		
				대전·세종·충청	110	10.8	110	10.8	1.00		
				광주·전라	102	10.0	98	9.7	0.96		
				대구·경북	98	9.7	98	9.7	1.00		
				부산·울산·경남	151	14.9	150	14.8	0.99		
				강원·제주	42	4.1	42	4.1	1.00		

WWW.  
FLOWERRESEARCH.  
COM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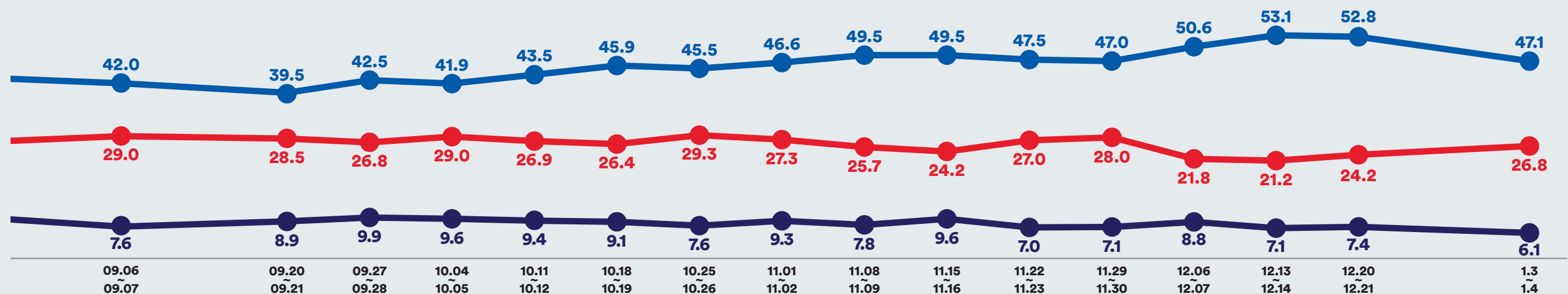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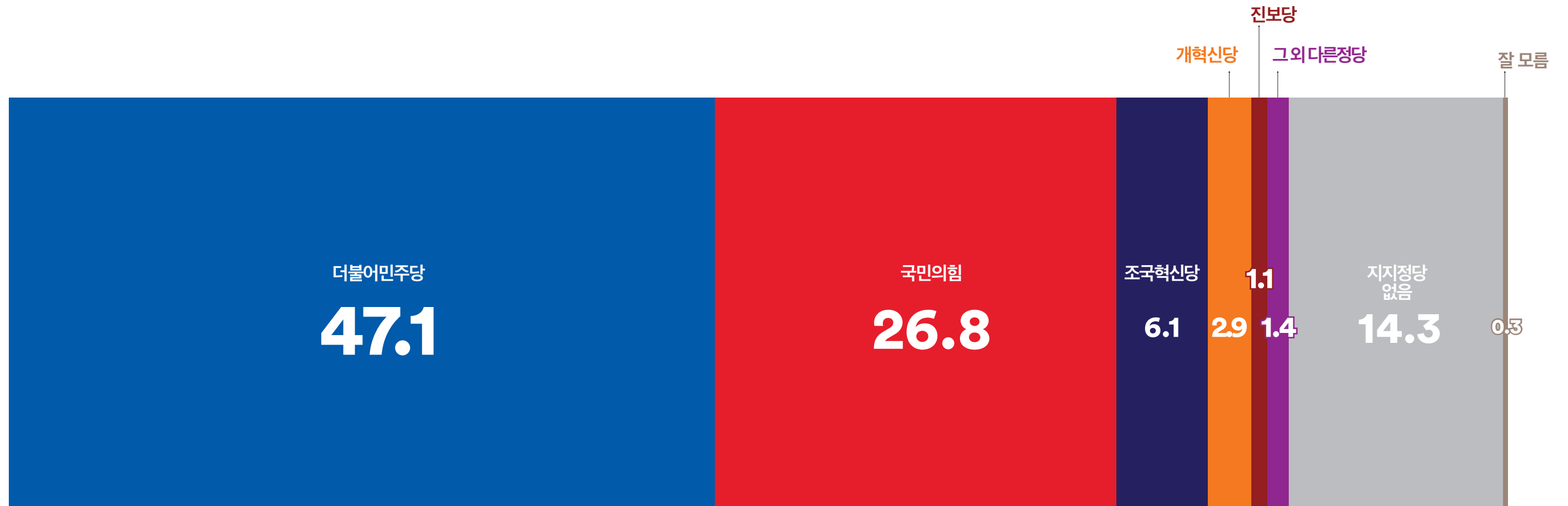


96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5.7%p 하락, '국민의힘' 2.6%p 상승, '조국혁신당' 1.3%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20.3%p (지난 조사: 28.6%p)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26.4%p (지난 조사: 36.0%p)

주차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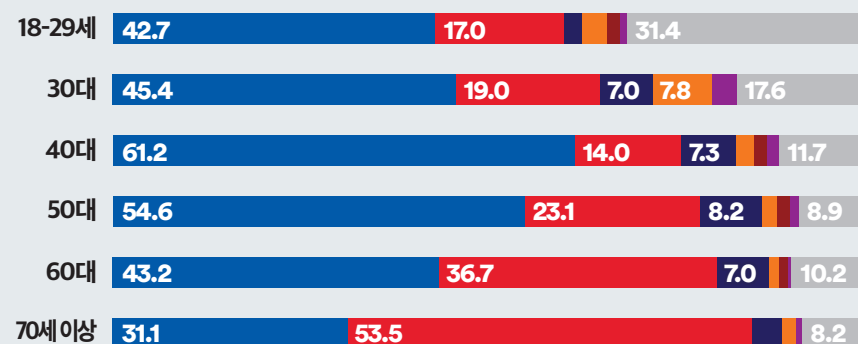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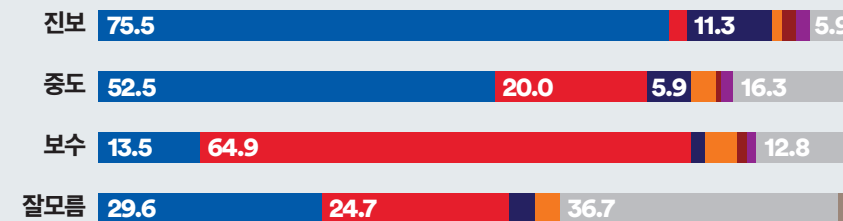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우세했고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오차범위 내 앞섬  
남·녀 모두, 진보·중도층 및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60대 응답층 오차범위 내 앞섬)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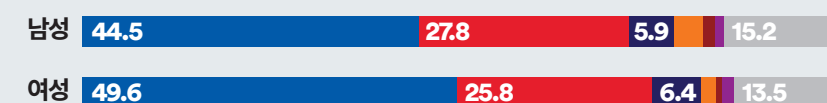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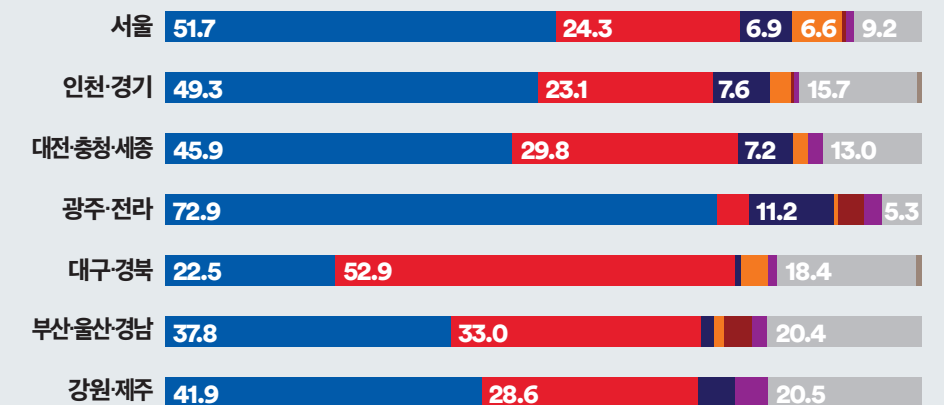
##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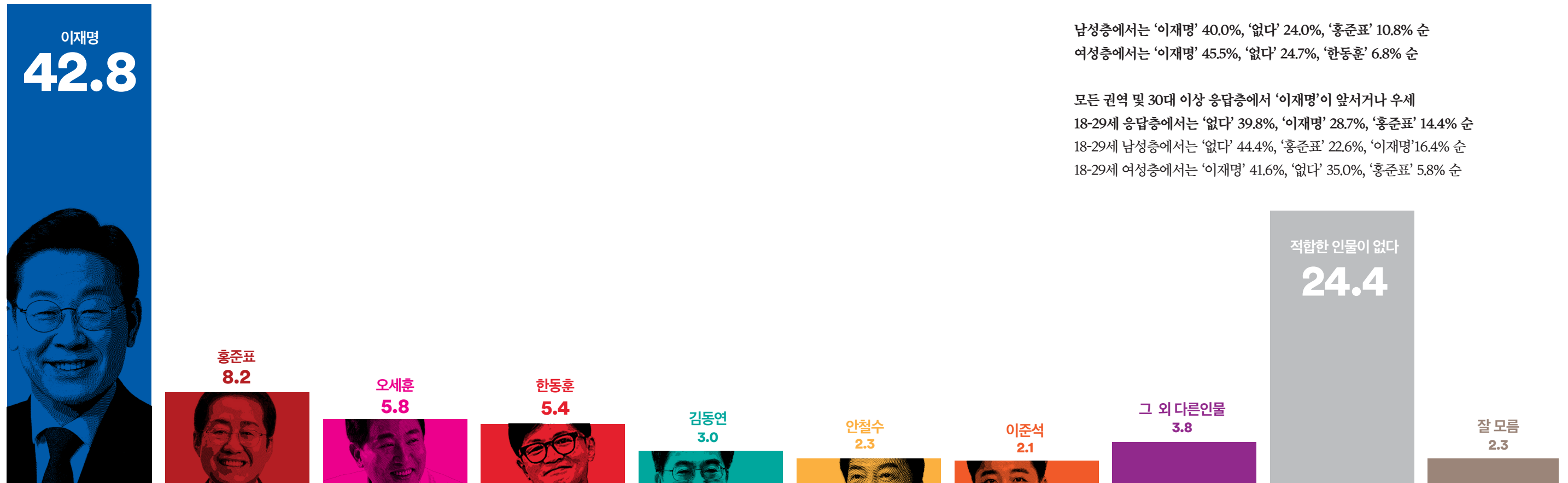
## 성별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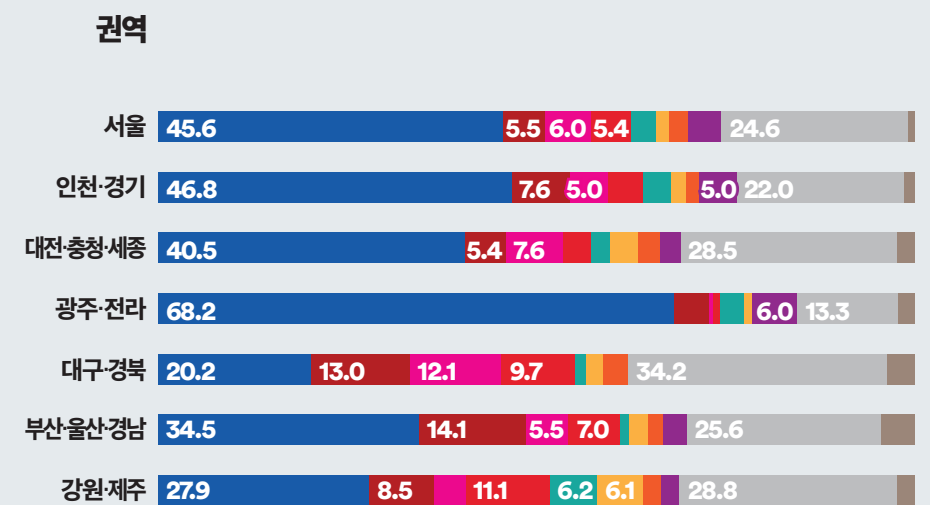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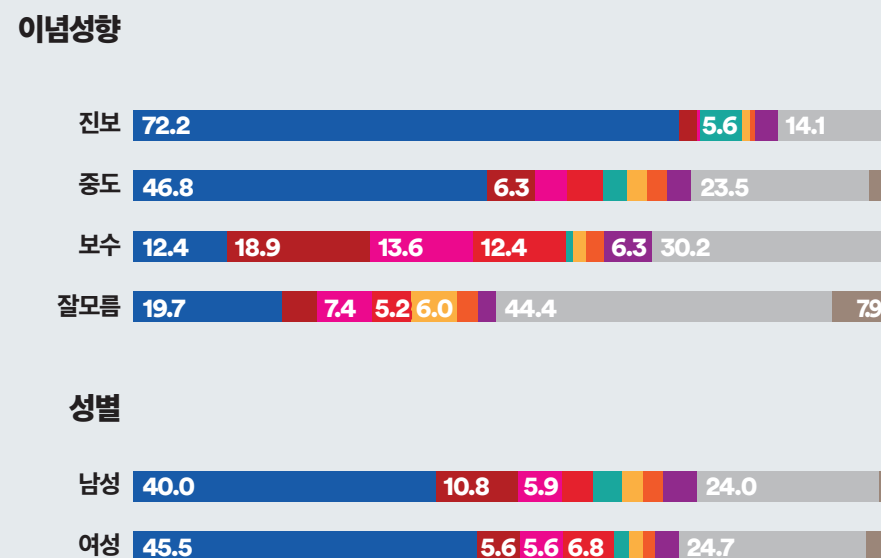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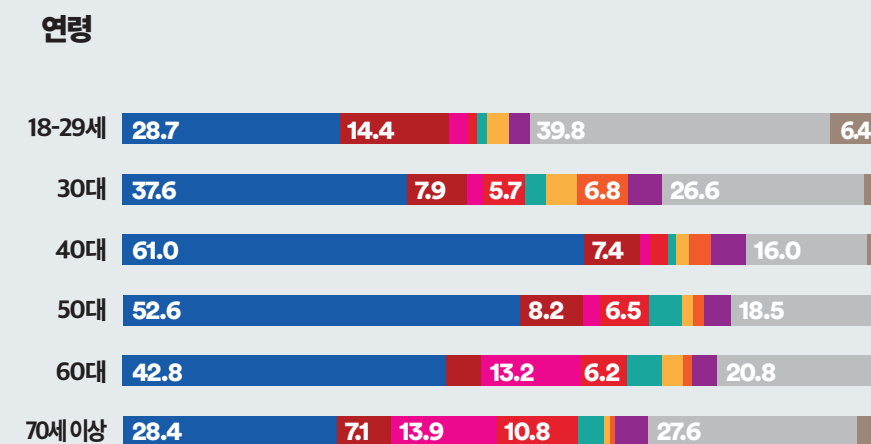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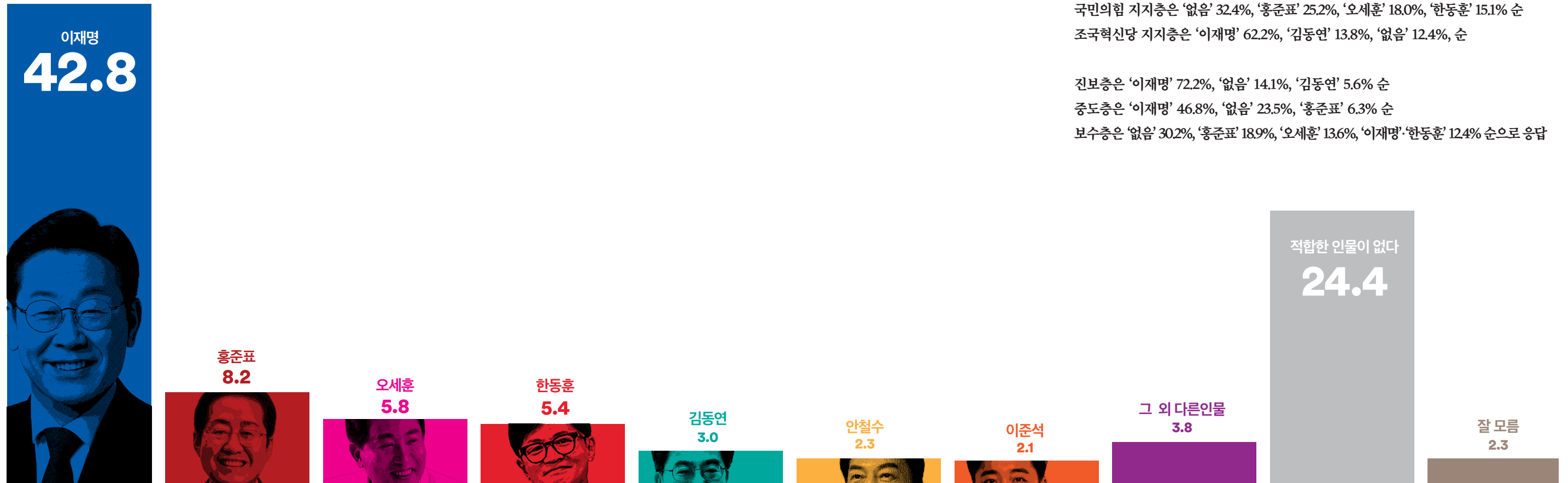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홍준표’ 대비 우세(격차: 34.6%p)

남성층에서는 ‘이재명’ 40.0%, ‘없다’ 24.0%, ‘홍준표’ 10.8% 순  
여성층에서는 ‘이재명’ 45.5%, ‘없다’ 24.7%, ‘한동훈’ 6.8% 순

모든 권역 및 30대 이상 응답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거나 우세  
18-29세 응답층에서는 ‘없다’ 39.8%, ‘이재명’ 28.7%, ‘홍준표’ 14.4% 순  
18-29세 남성층에서는 ‘없다’ 44.4%, ‘홍준표’ 22.6%, ‘이재명’ 16.4% 순  
18-29세 여성층에서는 ‘이재명’ 41.6%, ‘없다’ 35.0%, ‘홍준표’ 5.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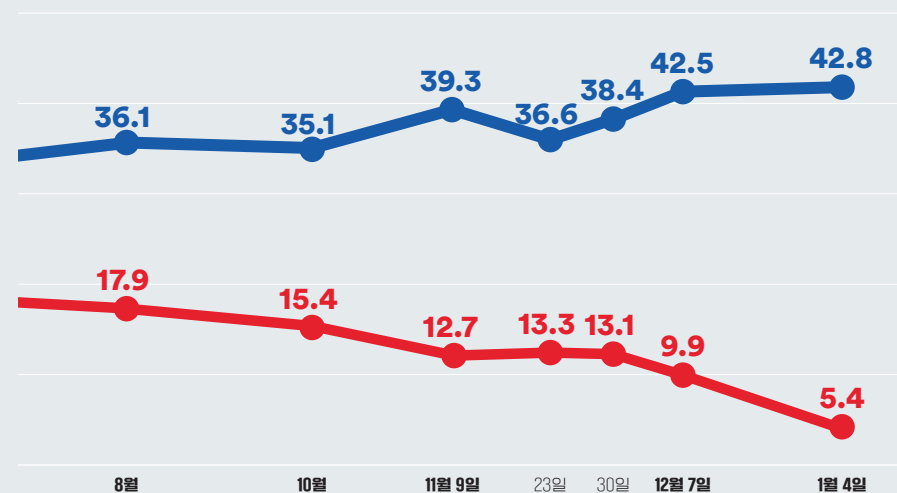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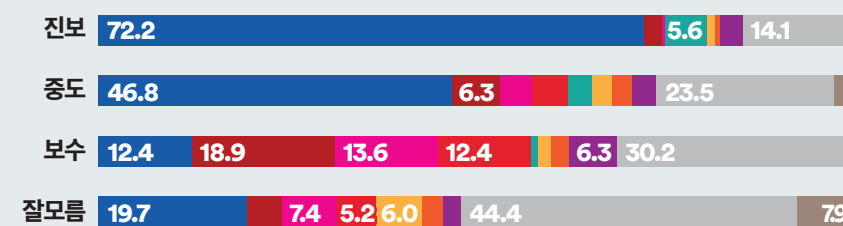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79.9%, ‘없음’ 10.7%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없음’ 32.4%, ‘홍준표’ 25.2%, ‘오세훈’ 18.0%, ‘한동훈’ 15.1%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62.2%, ‘김동연’ 13.8%, ‘없음’ 12.4%, 순  
  
진보층은 ‘이재명’ 72.2%, ‘없음’ 14.1%, ‘김동연’ 5.6% 순  
중도층은 ‘이재명’ 46.8%, ‘없음’ 23.5%, ‘홍준표’ 6.3% 순  
보수층은 ‘없음’ 30.2%, ‘홍준표’ 18.9%, ‘오세훈’ 13.6%, ‘이재명’·‘한동훈’ 12.4%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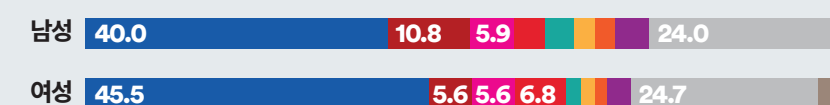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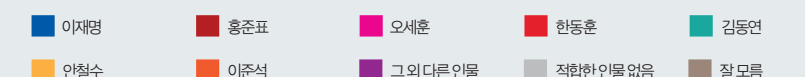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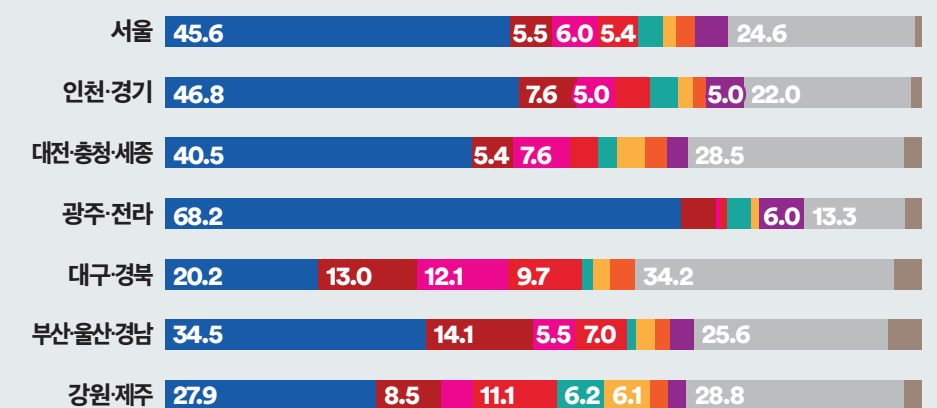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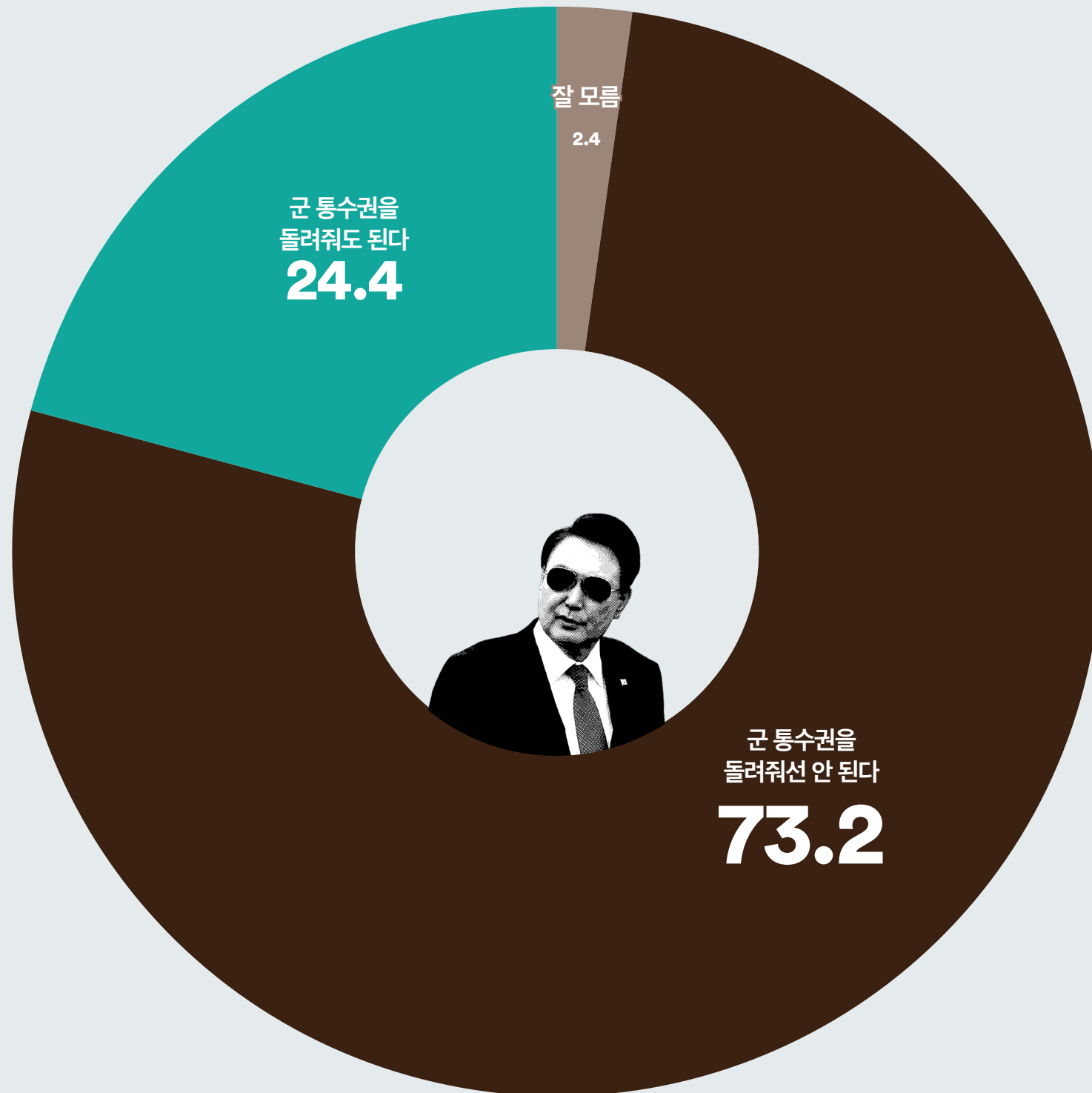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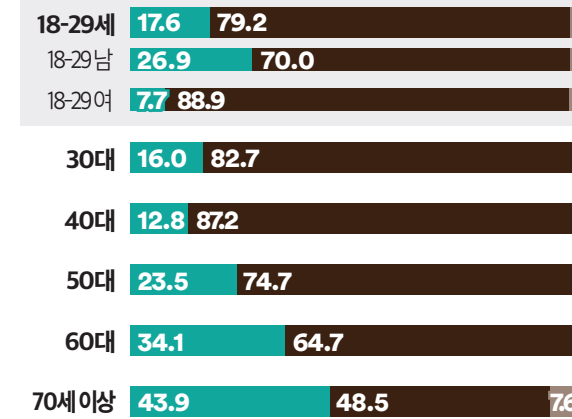


Q. 윤석열에게 군통수권을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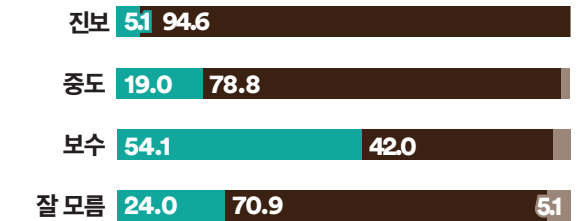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윤석열에서 군 통수권을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간 격차: 48.8%p)  
모든 권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돌려줘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윤석열 복귀시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3.1%) 이 '돌려줘선 안된다'라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75.6%), 보수층(54.1%)은 '돌려줘도 된다'고 응답해 다른 응답층과 차이를 보임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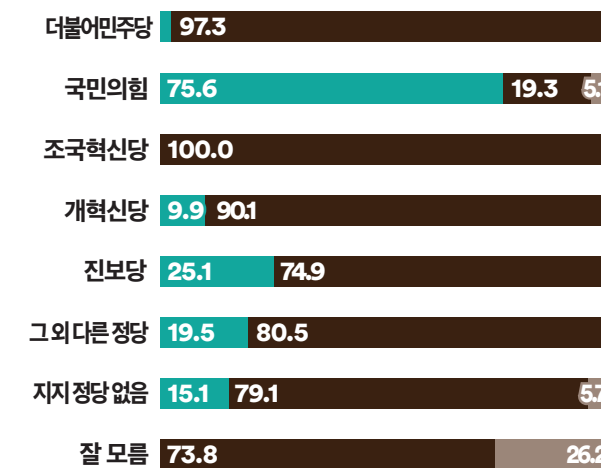
###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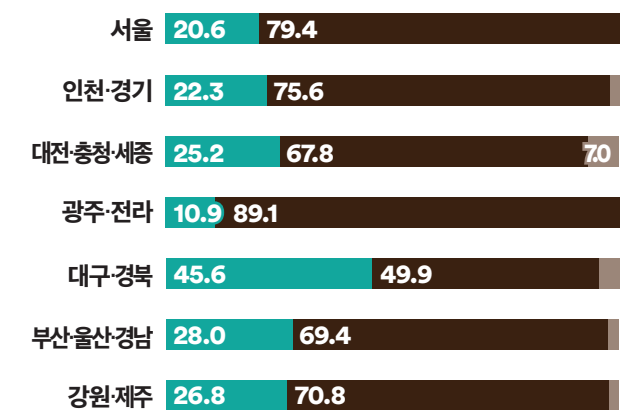
### 성별



### 정당지지도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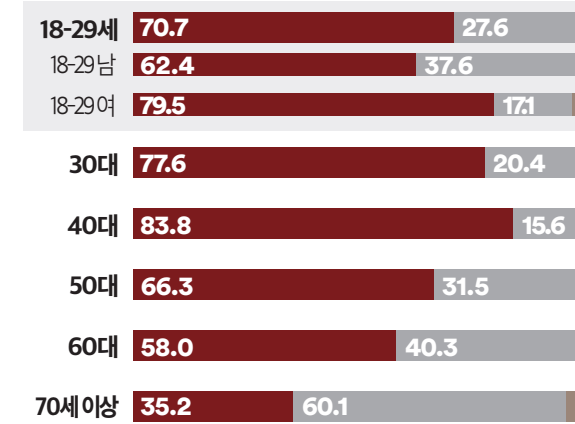
■ 돌려줘도 된다 ■ 돌려줘서는 안 된다 ■ 잘 모름

Q.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비상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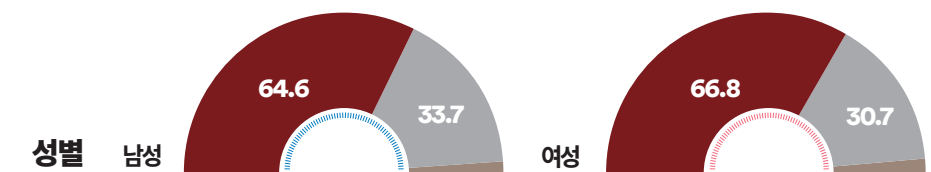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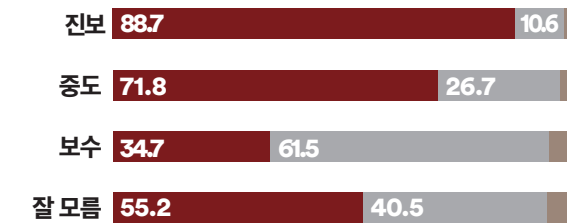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기각시 '비상계엄을 다시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층과 모든 성별, 진보층·중도층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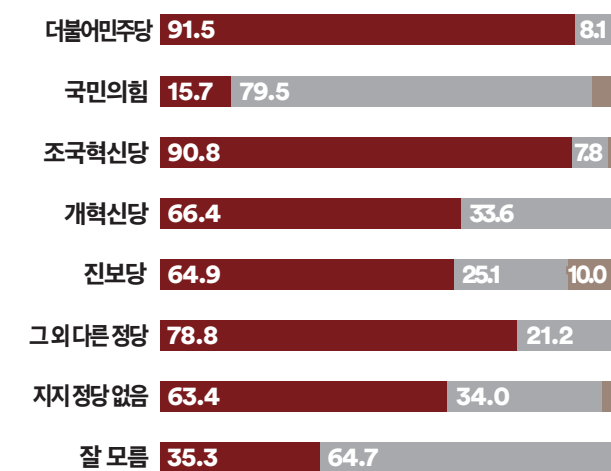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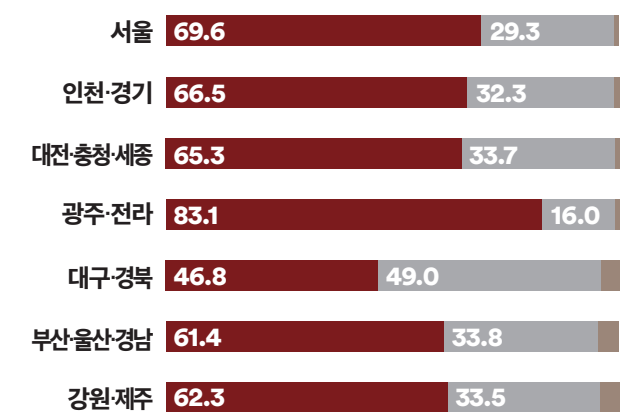
### 이념성향



### 정당지지도



### 권역



\* 113차 정례조사 결과 (12월 20일 - 12월 21일 조사)



Q.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몫 3인 모두  
임명해야 한다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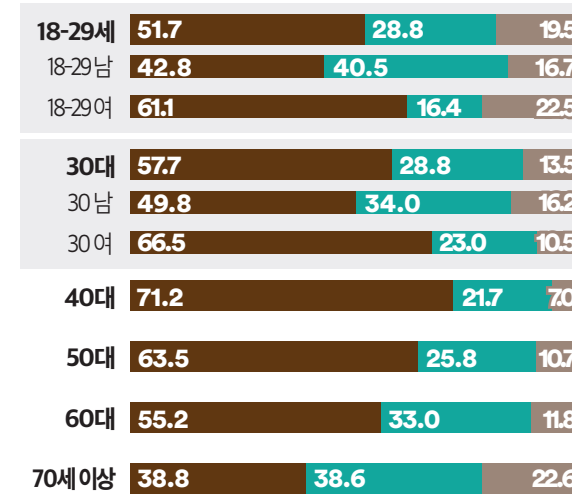
권한대행의 판단으로  
1명은 유보해도 된다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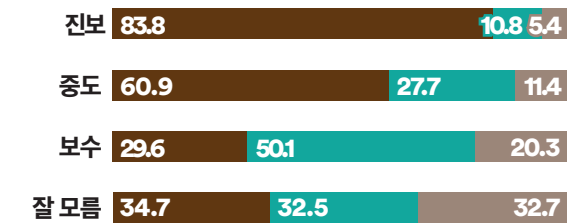
잘 모름  
13.8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모두 임명해야 한다'고 응답(격차: 27.9%p)  
두 응답이 팽팽한 70세 이상 응답층과 TK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권역에서 '3명 모두 임명'의견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1명은 유보해도 된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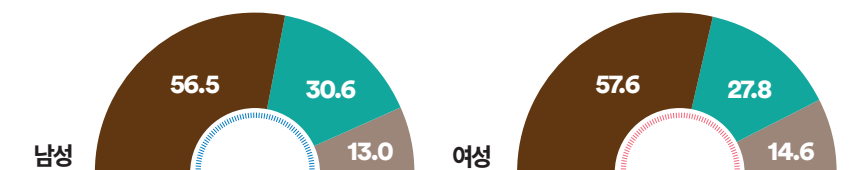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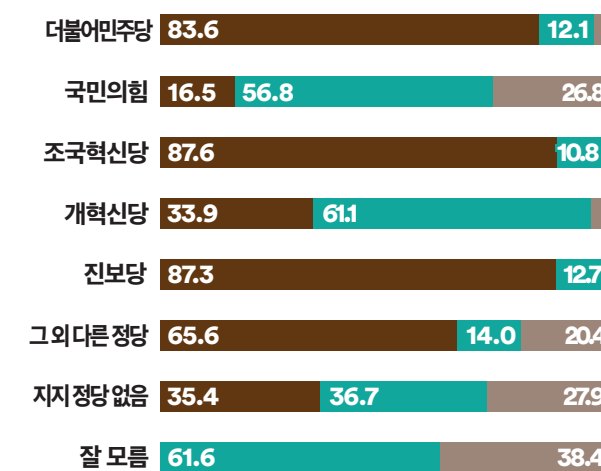
##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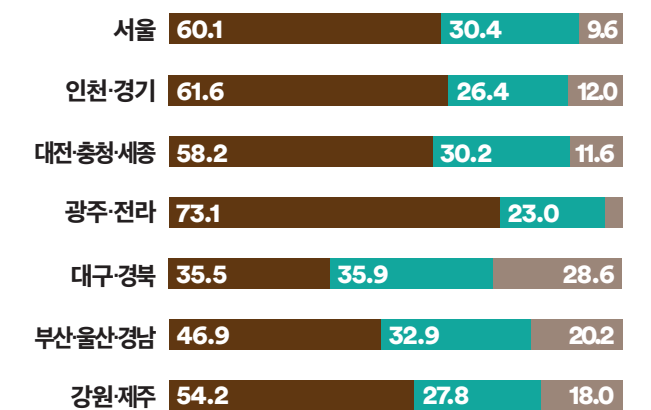
## 성별



##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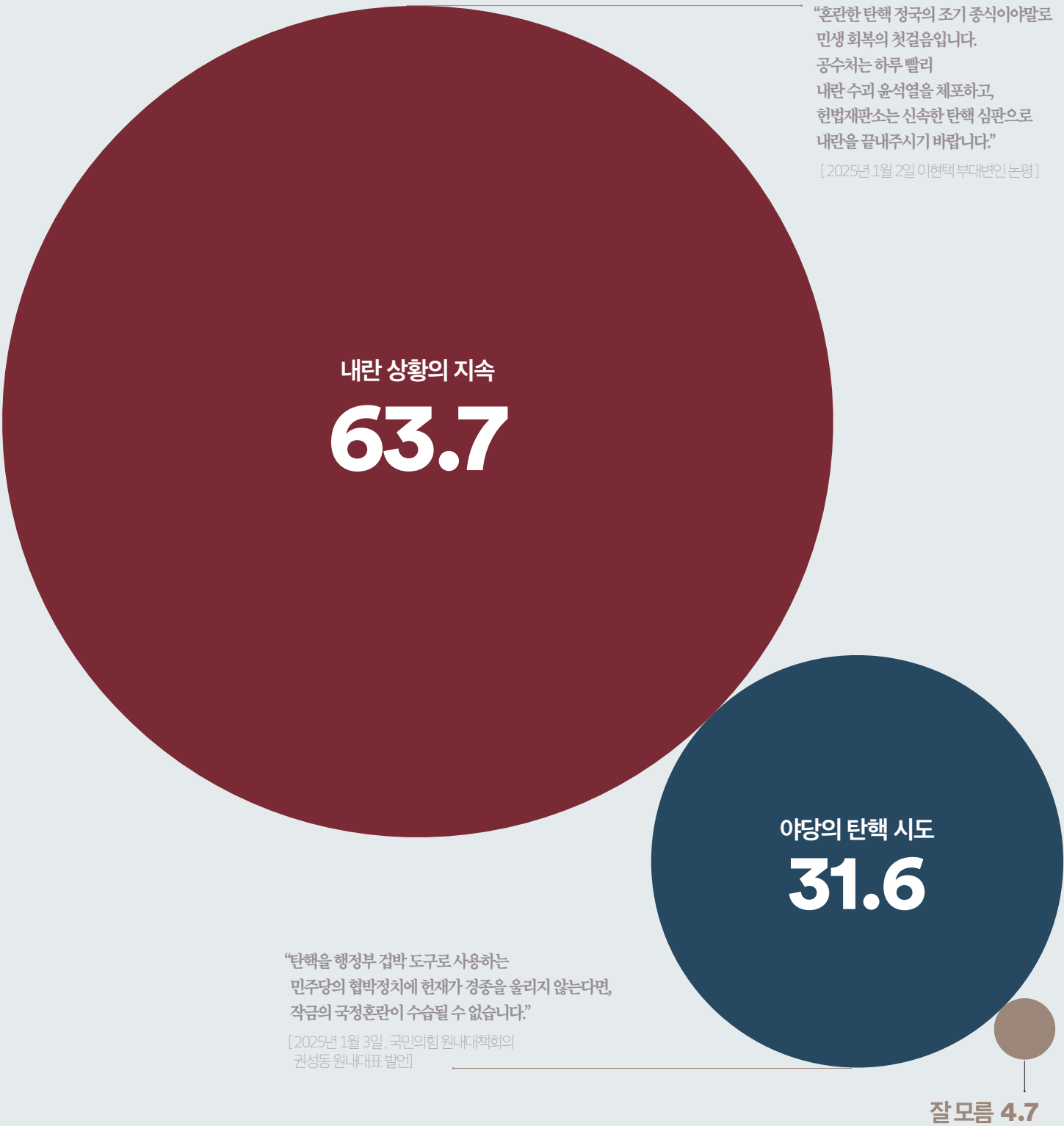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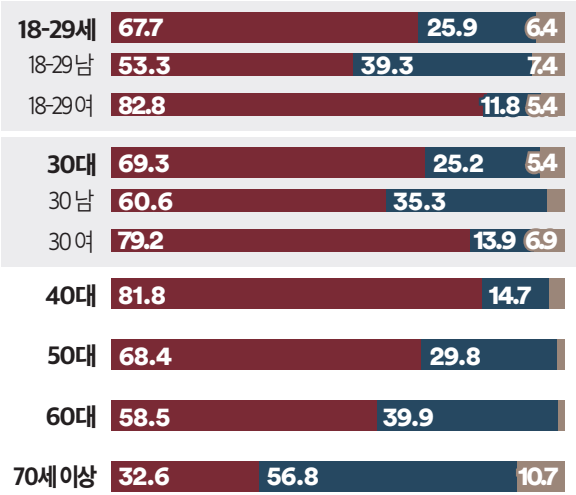
3인 모두 임명해야 한다 1명은 유보해도 된다 잘 모름

Q. 현재의 경기침체와 정국혼란의 원인이 다음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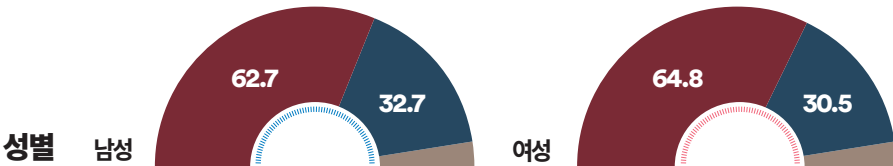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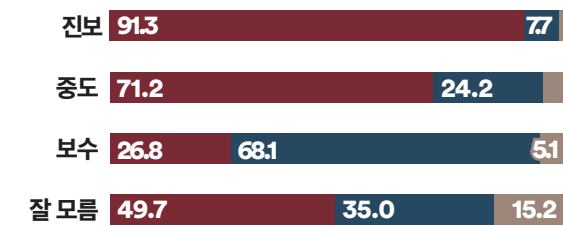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경기침체와 정국 혼란의 원인이 '내란 상황의 지속'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격차: 32.1%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별 응답층에서는 '내란상황의 지속'이 침체와 혼란의 원인이라는 응답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야당의 탄핵 시도'가 침체와 혼란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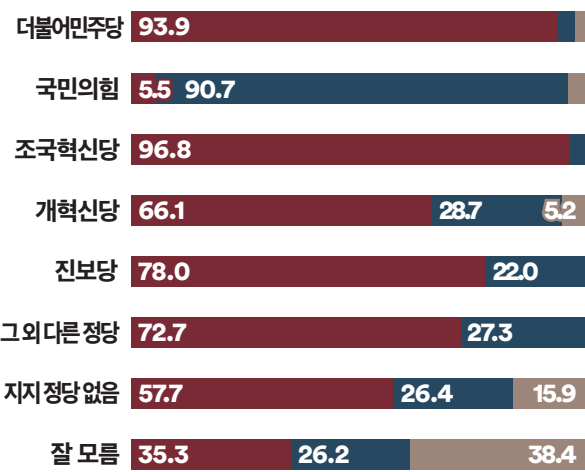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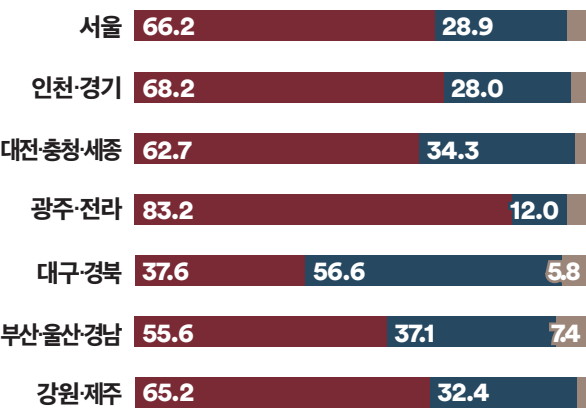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내란상황의지속 야당의탄핵시도 잘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501\_01

---